

# 러시아 학술원 개혁의 경과

작성자: 계동준 (대전대학교 러시아어 통역학과 교수)

작성일: 2013년 7월 26일

## ■ 학술원 개혁안 하원 기습상정

- 러시아의 총리 메드베제프는 작년 여름 러시아 학술원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역설한 후 올해 6월 27일 러시아 연방정부 정례회의에서 학술원개혁안을 하원에 상정시킬 것을 전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학술원 개혁에 시동을 걸었음.
- 러시아 정부가 제출한 학술원 개혁안은 7월 3일 국가두마 (하원)에서 1차 심의를 통과했으며 곧이어 7월 5일 2차 심의를 통과 올 가을 최종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음.
- 개혁법안 1차 심의에서는 필요정족수 226표를 초과하는 234명의 찬성과 153명의 반대, 1명의 기권으로 법안이 통과됨.
- 1차 심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핵심내용은 러시아 학술원(РАН)과 러시아 의학 학술원(РАМН) 및 러시아 농학 학술원(РАСХН)을 폐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의 사회 국가기관인 “러시아 학술원”(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)를 창설하자는 것과 구 학술원이 소유한 재산과 연구소들의 관리를 새로운 국가기관에 맡기자는 것임.
- 이것은 많은 학술 기관 대표자들의 불만을 야기 시켰으며 현재 학술원 원장인 블라지미르 포르토프와 22년동안 학술원을 이끌었던 전 원장 유리 오씨포프도 이 법안에 반대를 표명함.
- 개혁법안의 제안 설명은 부총리 올가 골로제프가 맡았으며 그녀는 이미 교육부장관 드미트리 리바노프가 지적했던 현재 러시아 학술원의 비효율성을 반복해서 질타하고 더 나아가 학술원이 소유한 토지에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고급주택들이 세워져 있으며 학술원소유의 부동산의 56%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공격함.
- 법안의 2차 심의는 찬성 344 반대 0 기권 1의 결과 통과되었으며 통합러시아당, 러시아자유민주당, 정의러시아당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공산당은 반대의 표시로 심의 전 날 하원을 떠났음.
- 2차 심의에서는 법안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으나 큰 변화는 없었음. 예를 들면 “러시아 학술원은 재구성되거나 폐원될 수 있다”라는 문구에서 폐원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으며 학술원이 계속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조항이라든가 1차 심의에서 통합된 사회국가 기관이라는 학술원의 성격이 국

가기관으로 수정된 것 등을 들 수 있음.

## ■ 개혁안 하원 통과에 대한 러시아 사회의 반응

- 러시아 학자들은 사안에 따라 학술원 개혁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학술원 개혁이 러시아에서 학문을 말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.
- 학자들은 개혁안 1차 심의가 열리던 날 러시아 국가두마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학술원 사망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조화와 비석을 세워놓고 장례식을 거행함.
- 이와 유사한 항의시위가 지방의 연구단지들(Академгородок)에서 벌어졌으며 전역에서 정부와 교육부장관 리바노프의 퇴진을 요구함.
- 특히 반대에 부딪친 것은 학술원의 재산권을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조항으로 이것에 의해 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.
- 생물학 박사 이라나 바크루신스카야는 정부가 지난 300년 동안 학술원이 독립기관으로 존재했다는 것과 한 때 동료였던 학술원회원 사하로프박사를 지지했던 것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.
- 학문을 러시아에서 <말살>하려는 의도는 정기적으로 발생했으며 이것은 현재 러시아의 연구자들이 외국기관의 연구기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.
- 연구자단체 공동의장인 안드레이 짜뚜란은 특히 학술원 개혁 법안이 학계와의 상의 없이 하원에 상정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으며 법안이 채택된 후 학자들은 <농노>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.
- 학술원의 재산권이 국가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에 반대의견이 많은 반면 세계의 학술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학자들도 있음.
-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한 인물로는 학술원회원이며 민족 및 인류학 연구소장 발레리 찰쉬코프나 모스크바 국립대 총장 빅토르 싸도브니치등을 들 수 있으며 러시아 기초연구기금 의장이며 학술원회원인 블라지슬라프 뻬첸코도 학술원의 통합을 유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.
- 학술원개혁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것에 의해 학문후속세대에 더 좋은 연구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해외로의 두뇌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.
- 러시아 학술원의 객원회원인 아나톨리 꼴라코프는 학술원의 현재구조는 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늘날 러시아가 직면한 중요 과제들, 국가안보 시스템의 근대화와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실

현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함.

- 개혁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학술원 재산 소유권의 국가기관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개혁을 60조원에 달하는 학술원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구실로 보고 있는 반면 정치정보 센터장 알렉세이 무힌은 소유권이전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.
- 그는 학자들의 경제활동은 학문 활동과 분리되어야 하며 현재 많은 학자들이 학문활동 보다는 경제활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함. 그의 자료에 따르면 104000명의 학술원 인원 중 연구자들의 숫자는 절반뿐이며 나머지는 행정직원에게 해당됨.

## ■ 개혁안이 해결해야 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들

- 급속하게 진행된 학술원개혁안에 대한 찬반논쟁과는 별도로 이 개혁안이 제대로 실행되었을 경우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학자들도 있음.
- 학술원 분자유전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콘스탄틴 세베리노프는 학술원 개혁은 이미 십년 전에 시작되었어야 했으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고 지적함.
- 그는 현재 정부가 제안한 개혁안이 몇 년 전에도 제시되었으나 거부되었고 학자들은 수도관을 해체하거나 막힌 변기를 뚫는 일을 하는 대신에 학문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학자들은 객관적인 학문적 잣대의 기준으로서만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함.
- 그는 또한 학술원의 재산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학술원의 것이며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경우 모든 학술원의 학자들에게 상응하는 연금을 확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.
- 현재 활동 중인 많은 학술원 회원들은 관청간의 장벽이 없어질 때 학자들은 더 용이하게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동료들과 긴밀한 협동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 때 개혁은 학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.
- 학술원개혁의 필요성에 가장 큰 구실을 제공한 것은 러시아 학술원이 처한 극단적인 비효율성으로 낡은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절대적인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임.
- 러시아학자들의 논문인용 지수가 3회인 반면 미국학자들의 지수는 13회이며 학술결과물 출판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145개국 중 120등으로 꼴찌에서 가깝음.
- 알렉세이 무힌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연구원들보다 독립적인 연구소가 오늘날 수십 배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 년에 천문학적인 숫자(15억에서 20억 달러)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국립연구원들이 그것을 대단히 비효율

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혁안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.

- 참고로 이번 개혁안에 의해 하나로 통합 될 구 러시아 학술원(PAH)은 예산 640억루블, 준회원769명, 정회원 531명의 기관이며 러시아 농학 학술원(PACXH)은 77억루블, 준회원148명, 정회원 178명이고 러시아 의학 학술원(PAMH)은 210억루블, 준회원 228명, 정회원 239명의 거대기관들임.

## ■ 러시아 학술원 개혁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

-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볼 때 개혁은 그 필요성보다 그 의도가 더 중요하며 본 러시아 학술원 개혁도 러시아 정부가 주도한 개혁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.
- 러시아학술원 개혁의 필요성은 총리 메드베제프가 언급하고 교육부장관 드미트리 리바노프가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찬반논쟁의 와중에서 대통령인 푸틴이 최종 결정적인 발언을 하고 그것에 따라 러시아의회가 법안을 가결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됨.
- 학술원과 개혁안을 충분히 토의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(1차 심의와 2차 심의기간 사이는 불과 이틀이었으며 여름휴가가 끝나고 난 후 열릴 최종심의에서도 별 기대할 것은 없음) 세부적인 내용과 실행에 있어 수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이나 학술원개혁은 결국 정치권의 의도대로 갈 것이며 이것은 교육개혁의 결과 러시아에서 최근에 통합된 연방대학 총장 중에 한 사람으로 교육자가 아니라 해외공작원출신이 임명된 것을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임.
- 학술원이 스스로 선출한 원장 블라디미르 포르토프는 과도기 학술원재산을 관리하는 새로운 국가기관의 장을 맡음으로써 일시적으로 학술원회원들의 불만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관료가 이 기관의 장을 맡음으로써 1724년 뽀프르 대제가 하사한 학술원의 재산권은 이제 러시아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.

## ※참고문헌

- [http://www.aif.ru/print/article\\_id/64728](http://www.aif.ru/print/article_id/64728) 검색일 2013.07.12
- [http://www.aif.ru/print/article\\_id/64771](http://www.aif.ru/print/article_id/64771) 검색일 2013.07.11
- [http://www.aif.ru/print/news\\_id/399570](http://www.aif.ru/print/news_id/399570) 검색일 2013.07.12
- [http://www.aif.ru/print/news\\_id/401386](http://www.aif.ru/print/news_id/401386) 검색일 2013.07.12
- [http://www.aif.ru/print/article\\_id/64582](http://www.aif.ru/print/article_id/64582) 검색일 2013.07.10
- [http://www.aif.ru/print/article\\_id/61457](http://www.aif.ru/print/article_id/61457) 검색일 2013.07.12

[http://www.aif.ru/print/article\\_id/64682](http://www.aif.ru/print/article_id/64682) 검색일 2013.07.12.

<http://rusplt.ru/policy/reformirovanitran.html> 검색일 2013.7.13